

증례 I - 7

상하악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완전 구강 회복

박 규 화, 장익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기존의 총의치 치료후, 기능과 심미면에 있어 불만족스럽고, 반복되는 sore spot의 생성이나 epulis fissuratum과 같은 주위 연조직의 반응이 좋지 않은 무치악 환자의 경우에 있어 현재 임플란트 치료가 중요한 대체 치료로서 고려된다.

이때 임플란트 보철물과 임플란트 간의 misfit이 존재하는 경우, screw loosening, 보철물의 파절과 같은 delayed component failure, 그리고, marginal bone resorption과 osseointegration failure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악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데 있어 보철물의 passive fit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하겠다. 임플란트 보철물의 passive fit을 얻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나, 최근 전기 방전 가공(spark erosion)법을 이용한 임플란트 보철물 frame work 제작이 소개되어 이용되고 있다.

본 환자는 수년간 상하악 무치악 상태로 총의치를 장착해온 분으로 상악 좌측의 협측 전정에 epulis fissuratum에 의한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이를 외과적으로 제거하고 의치상을 수정한 뒤, 환자의 요구에 의해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가 계획되었다. 기존의 의치가 교합적, 기

능적인 측면에 있어 안정적이었으므로, 이를 복제하여 상악의 CT 촬영을 위한 stent를 제작하였고, 이것을 참조하여 상악에 8개, 하악에 6개의 fixture를 식립하였다. 2차 수술후 상악의 fixture중 하나가 실패하였다. fixture level impression을 채득하고, 조직의 두께, fixture와 최종 보철물의 공간적인 위치관계를 고려한 abutment selection을 위해 약간 관계를 채득, 교합기에 올려 최종적으로 abutment selection을 시행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abutment connection후 바로 임시 보철물을 장착하였으며, 기능적, 심미적인 평가를 내린 다음 이를 바탕으로 보철 치료를 진행하였다.